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이 편지 한 통에 이천만 동포의 염원이 담겨있소

1919년,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파리강화회의

김규식 선생은 신한청년당의 민족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가 담긴  
독립 청원문을 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2,000만 국민의 염원을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한  
김규식 선생과 신한청년당

희망이 없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조국을 생각하던 그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김규식  
신한청년당 파견 대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18년 - 1922년 신한청년당

1918년 8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창립하여 외교와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청년독립운동단체.

1918년 12월 독립청원서를 미국의 월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되었다고 알 수 있는 단체로, 임시정부와 혼동되는 일이 발생하며 자진 해산했다.

위의 사진은 민족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신한청년당 김규식 선생과  
신한청년당이 제출한 독립청원문 13개조입니다. (자료제공처: 독립기념관)